

發明振興

누구나 發明인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최근 特許廳이 發刊한 전국 초·중·고·대(전문대 포함) 학생발명반 敎材 고·대용의 一部分이다.

企業의 特許管理 專擔要員 및 發明人等 讀者 여러분은 물론 그 가족, 특히 學生들이 함께 읽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紹介하기로 했다. <編輯者 註>

現代는 發明이 左右한다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時代의 최대의 특징은 發明時代라는데 있다. 發明은 하루가 다르게 그 變化의 속도가 加速化되어 우리의 生活樣式은 물론 衣·食·住에 까지 놀라운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發明이 가져다 준 利器 없이는 살 수 없는 時代에 살고 있다.

우선 우리가 豊富하게 입고, 먹고, 便安하게 쓸 수 있는 것만도 高級化學纖維의 옷감과,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 있게 한 人造肥料과, 뛰어난 촉감의 建築材料를 發明했기 때문이다.

그뿐 만이 아니다.

우리는 안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통해 수만리 떨어진 外國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스포츠를 겨루는 장면을 실제 競技하는 것과 같은 時間에 볼 수 있다.

또, 電話 다이얼을 돌리면 美國이나 西獨에 가 있는 친척들과 직접 對話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주방기구에도 마이크로 컴퓨터가 스며들기 시작하여 이제는 지시하는 대로 적적 일을 하는

時代가 열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發明人들의 줄기찬 努力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요즘 불과 몇년전 까지만해도 꿈처럼 생각되었던 公想소설이 現實化되는 것을 실로 여러 分野에서 목격하고 있다.

한마디로 現代는 發明이 左右하는 時代이다.

發明은 한 國家에 있어서의 國防의 힘이 되고, 經濟의 힘이 되고, 또 外交의 힘이 되어, 國力의 커다란 基盤과 背景이 되고 있다.

그래서 發明의 수준이 높으면 強大國 또는 先進國이라고 하며, 낮으면 弱小國 및 後進國이라고 부른다.

이때문에 세계 각국은 앞을 다투어 發明을 獎勵함으로써 國家의 發展을 도모하고 있다.

發明에 열을 올리고 있는 先進國들의 競爭은 戰爭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처럼 험난한 國際競爭 속에서 優位를 確保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優秀한 發明人을 發掘하여 育成하는 것 뿐이다.

특히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눈부신 發展과 繁榮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수 있는 길은 자라나는 學生들을 優秀한 發明人으로 길러내는 것 뿐 달리 方法이 없다.

따라서 學生들의 發明에 대한 敎育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絶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 모두 發明인이 되자. 發明만이 自身과 家庭과 社會와 國家의 장래를 保障해 주는 유일한 디딤돌이다.

現代는 發明만이 全部인 時代다

타고난 저마다의 素質을 開發하고,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기른다.

國民敎育憲章 중의 한句節이다.

現代는 마야흐로 發明만이 全部인 時代가 되었다.

發明의 功德은 人間生活 전반에 미치고 있다.

發明을 빼놓은 人生은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人間은 機械와 에너지의 發明으로 肉體의인 努力은 거의 필요가 없어졌다. 機械가 모두 대신하기 때문이다.

피아노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도자기를 만드는 등 그 匠人의 技術도 역시 精密機械가 보다 빠르게, 보다 아름답게, 보다 均일하게 만들어 준다.

옛날부터 人間의 頭惱의 일이었다면 읽기, 쓰기, 계산하기 까지도 機械가 보다 빨리, 보다 正確하게 해준다.

카메라는 한낱 機械지만 보는 것, 생각하는 것, 動作하는 것을 한 순간에 해 주면서 한치의 실수도 없다.

記憶도 頭腦의 몇만배나 IC가 해준다. 그리고 思考作用중의 判斷마저 LSI가 해준다. 바둑을 둘 줄 알고, 作詩·作曲을 할 줄 안다.

이리하여 超 LSI는 人間의 頭腦의 作用을 일일이 대신해 준다.

遺傳工學의 발달로 지금까지 없었던 生物을 만들어 내고, 人間이 바라는 것을 그 生物에게 연방 만들게 한다. 노예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人間에게 남겨진 일이라고 하면 發明뿐이다.

發明만은 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遺傳工學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人間의 극한의 수비 범위는 發明뿐인 것이 되고 만다.

더구나 그 速度는 매우 빠르다. 그런만큼 發明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증거를 부여해주는 유일한 일이라는 그런 時代가 된 것이다.

따라서 學生이라해도 發明의인 삶을 살지 않으면 곧 時流에 뒤떨어 지거나, 그 와중에 휘말려 다시는 떠오를 수가 없게 된다.

時代의 흐름에 떨어지지 않는 學生이 되는 것도, 훌륭한 社會인이 되는 것도, 세계속의 韓國인이 되는 것도 모두 發明의인 삶을 사는 學生만이 가능하다.

發明이 없는 삶은 노없는 배와 같다. 發明은 누구나의 몸에 살아 숨쉬는 유일한 財産이며, 停止하고 있는 그 무엇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萬能의 動力이다.

그 어느 것도 發明에는 이기지 못한다.

發明에 대한 강한 所望을 가지지 않고 남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成功을 이룬 사람은 없다. 發明의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을 모두 실현하며, 또한 결코 꺾이는 일도 없다.

지금까지 成功한 사람과 失敗한 사람의 차이도 따지고 보면 發明의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 뿐이다.

韓國發明特許協會가 調査分析한 資料만도 그 實例는 수천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學生들의 發明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學生들과, 學生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 사촌이 사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國家的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發明은 人間의 本能이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나도 좀 색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다.

그것이 곧 發明의 根幹이다.

이는 眞·善·美를 추구하는 人間의 本能과도 같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 속된 식욕과 물욕에 가까운 本能의 일종일 것이다.

그러므로 發明을 하면 그 大小에 불구하고 쾌감을 맛보게 된다.

發明이 사람을 젊어지게 하고, 또 長壽를 누리게 하는 根本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옛 哲人이 '人間은 新規性의 욕구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도 發明의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行動이 바뀌고, 行動이 바뀌면 習慣이 바뀌고, 習慣이 바뀌면 人格이 바뀌고, 人格이 바뀌면 運命이 바뀐다.

잠든 才能을 두들겨 깨우는 것은 자신 뿐이다. 運命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내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素質과 才能을 가지고 있어도 發明이 없는 그 才能을 발휘할 수 없다. 같고 닦지 않으면 썩어 버리고 만다.

특히 學生의 頭腦는 움계 쓰면 쓸수록 좋아지나, 서투르게 쓰면 쓸수록 나빠진다.

강조해 두건데, 참으로 값있는 것은 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알을 품고 있는 거위인 것이다.

그 노란 알을 품고 있는 學生들의 거위란 自身の 內部에 숨어있는 發明心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發明해 내는 일은 일종의 冒險이기도 하다.

常識에 따라만 가면 安全하다. 常識을 벗어나면 그 폭의 大小에 불구하고 危險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우기 그 일탈의 폭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危險時 한다.

氣車를 發明한 스티븐슨과 氣船을 發明한 폴덴의 집이 성난 사람들의 불세례를 받고 파괴된 것이나, 地動說을 주장한 갈릴레오가 박해를 받은 것도 바로 그 증좌이다.

따라서 發明을 하는 것은 冒險이 따르고, 失敗하면 세상의 嘲笑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런 冒險心이 있으므로 해서 세상을 進歩해 나가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것이 失敗로 돌아가고, 많은 發明人이 嘲笑를 받고 손해를 보아도 그것을 개의하지 않고 發明에 사는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크고 작은 가지가지의 發明이 나오고 새로운 歷史가 創造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發明은 할 수만 있다면 해놓고 볼 일이다.

적극적인 發明을 한 人生은 물론 부(富)를 保障한다. 사실 保障이나 富는 ‘부여한다던가’, ‘미리 준비 한 다던가’ 하는 物質的인 것이 아니다.

物質的 保障은 사람이 自己 内部에 가지고 있는 發明力을 잠자게 하고 만다.

사람이란 冒險과 努力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發明力을 발전시킨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物質的인 方法으로 ‘완전히 保障’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의의 주인공 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라 하고 自身の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進歩에 대한 努力이 상실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發明力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發明은 人間의 本能이다. 마음의 姿勢와 發明力은 누구에게나 成功을 가져다 준다.

人間이 가질만한 유일한 富는 外部에 있는 것이 아니라 内部에 있는 것이다.

發明은 사는 보람이기도 하다

“人生의 目的은 무엇인가? 사는 보람이란 무엇인가? 일과 사는 보람과는 兩立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요즘 高等學生 및 大學生들의 공통적인 關心事다.

이 같은 사실을 놓고 學者들은 ‘놀라운 일’ 또는 ‘기특한 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아름든 요즘 高等學生과 大學生들 사이에는 사는 보람이라는 말이 강하게 외쳐지고 있다.

십지어는 일부 初·中學生들 까지도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그런 의문을 갖고 무엇인가를 더듬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면 眞實로 참된 삶의 보람은 무엇인가?

韓國發明特許協會가 1983년 ‘외길 집념의 승리’와 1986년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이라는 發明成功事例를 결집한 發明技法에 관한 책을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發明人·企業代表·家庭主婦·會社員·教師·學生

등 2백여명을 대상으로 調査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發明에 의한 自己 發見’이었다.

그들은 自身들의 可能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실재없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고생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리고 그 結實로 그때 그때의 問題를 해결하고, 다시 企劃을 하고 發明力을 발휘하여 前進해 나가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자랑하고 있다.

결코 현재 얻고 있는 地位나, 財産이나, 名譽를 즐겨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自身들이 살아 온 人生의 고비고비에서 체험한 發明에 의한 삶의 보람—이것을 바로 사는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高等學生들이 學業을 마치고 사회에 進出할 때 쫓으면 우리나라도 정년 퇴직의 나이가 연장되거나, 分野에 따라서는 아예 없어진다는 것이다.

셀러리맨이 라이프 워어크(平生事業)를 갖는 다고 할때는 일을 통해서 사는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

그저 막연하게 그날 그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녕 살아있는 보람을 일에서 實感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連續的인 아이디어의 開發, 즉 發明이 떠올 때만이 可能하다.

결국 라이프 워어크란 단순히 會社를 위한다거나 家族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自己 自身을 위해 사는—그런 일이고, 미지의 自己를 發見하는 일이며, 복잡한 社會속에서 自己라는 것의 存在意識을 찾아내는 일이라는 말이다.

職場에 잔뜩 不滿이나 품고 대못집에서 술잔이나 기울이면서 일과 上司에 대한 不平이나 일삼는 사람, 自己 일에 意慾을 잃고 나날을 惰性으로 지내는 셀러리맨, 그날 그날을 無事하게만 지내면 된다는 安易한 생각에 빠져버린 사람, 그저 출세만을 위하여 上司에게 무조건 아첨하고 시키는 일이나 해나가는 사람—이런 사람은 끝내는 몇년인가 뒤엔 일의 찌꺼기와 철박한 自己 自身만이 남게된 것을 느끼게 되어 人生의 허무함을 한탄하게 된다.

누구나 發明人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學生들은 發明은 博士나 科學者 등 특수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發明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순간적으

로 스쳐가는 아이디어를 잡느냐 놓치느냐가 成功을 좌우한다.

이는 다음 이야기에서만도 충분히 立證이 되고 남음이 있다.

언뜻 보기에 별것 같지도 않고, 이것은 무슨 發明特許品 이냐고 생각하기 쉬운 ‘철조망’이 美國의 13세 목동소년 ‘조셉’을 세계적인 富者로 만들어 놓았다. 목동 소년 조셉이 가끔 단전을 피우다 보면 양들은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農場을 망쳐놓았다.

목동 조셉은 그때마다 主人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게 할수 있을까? 목동 조셉의 머리속에는 온통 이 생각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목동 조셉은 실로 놀라운 事實을 發見했다. 양들이 넘어가는 울타리는 장미넝쿨의 울타리가 아니라 철사만 둘러친 울타리였다.

양들의 習性을 알아낸 목동 조셉은 그 즉시 대장간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양들은 장미 넝쿨의 울타리는 가시 때문에 넘어가지 못해요. 제 생각에는 철사 울타리에도 장미넝쿨 처럼 가시를 붙이면 양들이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목동조셉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철사 군데군데에 가시철사 가닥을 넣어가면서 새끼처럼 꼬아 울타리에 들렀다.

成功이었다. 양은 단 한마리도 철조망을 넘어가지 못했다.

목동 조셉 父子는 즉시 國內外에 特許로 出願하고 事業을 시작했다.

이 철조망은 처음에는 牧場과 農場 그리고 가정의 울타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大戰이 발발하자 세계 각국에서 國경선용으로 까지 사용하게 되어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

조셉이 特許權의 존속期間이 끝날 때까지 15년동안 받은 로열티(特許權 사용료)는 美國에서도 이름난 제리사 11명이 1년동안 계산했어도 계산하지 못한 실로 天文學的인 巨額이었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發明으로 연결하여 成功한 경우는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美國人 ‘루드’의 ‘코카 콜라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8세의 루드는 작은 병공장 공원이었다.

1923년 어느 봄날, 루드는 그날도 유리병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저 유리병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가지 모양의 유리병을 만들어서는 부수고, 또 만들어서는 부수고 있었다. 그 무렵 美國에서는 유리병이 물에 젖어도 손에서 미끌어져 떨어지지 않고, 병에 든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병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루드는 벌써 수백개의 병을 만들었다 부수었다.

바로 그날 그의 여자 친구가 찾아왔다. 그날의 그녀의 모습은 여느 때보다 예뻐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무렵 유행하던 주름치마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이 치마는 종아리 있는 곳이 좁기 때문에 걸기는 조금 힘이 들었으나 궁둥이의 선이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시 女性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

루드는 한참동안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루드의 머리 속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이것이다!”

루드는 즉석에서 주름치마에 곱게 가려진 女子 친구의 궁둥이 모습을 강조한 유리병을 만들었다.

루드가 만든 병은 가운데가 볼록 튀어 나오고 주름이 있어 우선 물에 젖어도 손에서 미끌어질 염려가 없고, 위와 아랫 부분이 좁아 들어가는 量도 종래의 병에 들어가는 量의 80%면 충분했다.

特許出願을 마친 루드는 그 병을 들고 ‘코카콜라 會社’社長을 찾아갔다. 成功이었다. 루드의 特許는 코카콜라 會社가 6백만달러라는 巨額에 사주었다. 돈은 登錄後에 받았다.

이렇게 하여 루드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으며, 지금의 코카콜라병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밖에도 美國人 ‘윌트 디즈니’는 생쥐를 보고 ‘미키마우스’를 고안하여 억만장자가 되었고, 日本人 ‘마쓰시타’는 ‘나사식 소켓트’를 ‘直入式 소켓트’로 改良 發明하여 日本 10대 企業중의 하나인 ‘마쓰시타(松下) 전기산업 주식회사’의 會長이 되었다.

또 美國人 ‘필립’은 나이 16세에 ‘一자 나사못’을 ‘十자 나사못’으로 改良 發明하여 ‘필립사’의 社長이 되었으며, 美國人 가난뱅이 화가 ‘하이만’은 연필과 지우개를 합한 ‘지우개 달린 연필’을 發明하여 세계적인 發明人이 되는 등 생활주변의 간단한 아이디어를

發明으로 연결하여 成功한 예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도 2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會社員이던 강태욱씨는 ‘평면
식 등사기’를 ‘윤전식 등사기’로 改良 發明하여 ‘대진
기계공업사’의 社長이 되었고, 失業者였던 홍성모씨는
‘인조화’를 보고 ‘인조과일’을 發明하여 ‘우신모조화
사’의 社長이 되었으며, 新聞記者였던 안유호씨는 꽃
주머니 끈을 보고 ‘스피드 군화 끈’을 發明하여 부광
트레이딩주식회사의 社長이 되었는데, 이같은 사례는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 취재한 것만도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 모두 發明人이 되자

이제 學生들도 한결 쉽게 發明人이 될 수 있게 되었
다.

特許廳과 韓國發明特許協會는 앞으로 學生들에게
發明技法과 特許法을 指導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學生들의 發明은 出願 登錄費用도 받지 않을 계획이
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년부터는 全國學生發明品展示會
도 열리게 되었으며, 優秀한 發明을 한 學生들에게는
푸짐한 장학금도 주기로 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名譽도, 地位도, 돈도,
幸福도, 學問도 모두 人間의 發明에서 비롯되었다.

또 사람들에게 이치됨 큰 幸運을 안겨주는 發明의
소재인 아이디어는 매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
든 사람들의 주위에서 主人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學生들도 ‘1日 1發明’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살아야겠다.

“이 세상에 아이디어를 發明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지요.”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아! 이것이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잡아 發明으로 연결할 때의 쾌
감! 그것은 必然的인 것으로 發明이란 실로 幸福한
作業이다.

따라서 學生들도 항상 자기 생활주변에서 보다 편리
하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찾아 發明으로 연결하는 습관
을 길러야겠다.

이러한 努力이 집결될 때 우리나라의 産業技術도 발
견의 밑바탕을 더욱 튼튼히 하여 先進國 도약의 초석
이 될 技術立國의 꿈을 實現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發明人이 되자.

그 속에 우리들의 꿈이 있고, 가고자 하는 길이 있
다. (○)

아이디어뱅크 개설안내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
록 關聯企業등에 連繫시키므로서 汎國民的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
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對 象 :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 接 受 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發明獎勵館(TEL: 568-8263)
-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 分期別로 審査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査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